

레포트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에 관한 연구

박성래

부경대학교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에 관한 연구

Feasibility of Enhancing Fishing Household Income Through Leports-fishing Development

Seong-Kwae Park

*Faculty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Maritime Institute*

Su-Jin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potential of leports-fishing for improving fishing household income. Leports-fishing is a composite concept which is combined with those of leisure, sports and fishing. Korean on-shore resources have also a composite characteristic.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waters are quite different in geography, biology and ecology. There is a array of leports-fishing development potentials of utilizing their characteristics. At present, angling forms a main activity of leports-fishing, but coastal seas would be an emerging space for the public. In order for them to be a ground of fun, enjoyment and festivals, there would be necessary to supply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angling, scuba diving, fish barbecue, ecological experience, fishing experience, cruise, and so forth.

As seen in the survey results, the participants have strong desire for fun and enjoyment through leports-fishing activities. The proportion of people participating in one or two times a year amounts to 40 percent. Most coastal places visited are close to medium/large cities and two-days leports-fishing/tourism accounts for some 77 percent. However, it is shown that conflicts between leports-fishing participants and fishermen are not serious. The results of expenditure function estimation appear that the elasticity of per capita income is very high with 1.2660 and that there ar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leports-fishing expenditure and transportation/food/lodging costs. Assuming the economic growth rate of 4 percent, it is anticipated that Korean leports-fishing population will increase to 3.18 million in 2010 and 4.07 million in 2015. Korean leports-fishing market potential in 2015,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per capita expenditure on leports-fishing appeared to be 1,400 billion won~1,600 billion won. The contribution of such market potential is expected to be 62.3~74.2 percent(934.5 billion won~111.3 billion won) to the fishing households.

Key words : Leports-fishing, leisure, sports, fishing, expenditure function, and elasticity.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511, skpark@pknu.ac.kr

I. 서 론

레저·관광(leisure & tourism industry)산업¹⁾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연관산업 효과가 높으며 매우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서비스산업이다. 레저·관광산업은 21세기 주도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레저활동이 중요시되는 생활패턴이 정착하면서 레저·관광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는 『Tourism 2020 Vision』을 통해 세계 관광인구가 연평균 4%씩 성장하여 2010년에는 2000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 증가, 웰빙(wellbeing 참살이) 확산 등에 따라 레저·관광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소득증가와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관광 및 레포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관광수요는 경관감상과 같이 감상형 테마를 주축으로 하는 기존의 관광형태가 아닌, 보다 체험적이고 동적이며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체험형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라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해양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기타 양식 및 수산물 가공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의 참여 해양 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및 레포츠는 여타 분야에 비해 보고 즐기고 느끼고 활동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어촌체험 가능성이나 정서적 안정감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패턴 변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15여 년 동안 해양관련 레저·레크리에이션(recreation)²⁾·관광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김홍운·김사영 1992, 김성귀 1995, 1998a, 1998b, 김석중 2000, 도미경 2004, 손대한 외 2004, 바규석·이상고 외 2005, 류정곤·박성쾌·이티카운슬·노영희 외 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미래전략 계획으로 『해양한국 2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1999)에 해양관광개발 부문을 포함하였고, 2005년 『어촌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2005년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어촌·어항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어항협회는 특

1) 레저(leisure)의 개념은 상황과 관점에 따라 시간 또는 활동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Godbye(2003)(권두승 등 공역 2005, p. 29)는 여가를 『개인적으로 즐겁고 직관적으로 가치 있고, 신념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고의 사랑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도록 문화와 물리적 환경이라는 외부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상대적 자유를 누리는 것(시간/활동)』으로 정의한다. 반면, WTO는 관광을 『사람들이 레저, 사업 등의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에 그들의 통상적 환경을 벗어나 다른 장소로 여행하고 그 곳에서 머무는 활동』으로 정의한다(Goeldner · Ritchie 2006, p. 7).

2)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이란 「일과 놀이의 즐거움이 연속선상에 묶여 있는 조건부 기쁨의 총체적 태도를 말한다. 우리는 그 자체만을 고려하기 어렵고 인간은 일해야 하고 피곤해지고 어떤 레크리에이션을 취함으로써 다시 일하게 된다. 환언하면 레크리에이션은 그 의미와 기능에서 일 의존적이다」(Godbye 2003: 권두승 등 공역 2005, p. 38).

수법인으로서 어촌관광개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종합수변개발(integrated waterfront development)의 차원에서 어촌개발과 해양 레포츠피싱 개발, 어촌관광개발 정책 등을 접목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정부는 신규로 창출되는 레포츠·관광인구를 어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어촌의 관광기능과 체험성을 극대화한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체험마을 지정사업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들이 주로 시설사업에 치중되고, 형식면에서도 개별체험과 같은 극히 제한된 형태의 프로그램에 국한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도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더러 이러한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레저 및 스포츠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양 생물자원 이용을 둘러싼 어업인과 관광객 간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해양개발과 해양보전이라는 논리가 상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체험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활동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자원의 특성, 즉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해양 레저·레크리에이션·스포츠·관광활동의 개별 개념 하에서는 해양수산자원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정책개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 특성을 감안한 실천적 개념으로서 『레포츠피싱(Leports-fishing)』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레포츠피싱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레포츠피싱이 궁극적으로 어업인 및 연안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소득기반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아울러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레포츠피싱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포츠피싱 형태를 유형화하며, 레포츠피싱 수요를 분석·예측하여 소득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다. 제2장에서는 레포츠피싱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레포츠피싱의 설문조사 분석에 할애되었으며, 제4장에서는 레포츠피싱의 수요분석 및 예측을 하였다. 제5장에서는 어촌의 역할과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촌 소득원개발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 및 정책함의 도출에 할애되었다.

II. 레포츠피싱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레포츠피싱(Leports-fishing)』은 레저(Leisure)와 스포츠(Sports)와 피싱

(Fishing)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레포츠피싱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기에 앞서 레저, 스포츠, 피싱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레저는 참여의 주된 목적이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집을 떠나 행해지며 삶의 재충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엄서호 1998).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사용한 후 남는 시간에 특정의 목적, 가치 및 수단적 의미를 부여해 어떠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Sports)는 사전적으로 『체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서, 오락으로 즐기거나 승부를 겨루기 위한 신체운동』으로 정의된다. 스포츠는 중세영어에서 『전환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Sporten』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방향전환』이나 『오락』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스포츠란 본질적으로 일과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경쟁적 성격을 가지는 정신적·신체적 활동이며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레저와 스포츠가 조합된 레포츠에 대한 개념은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레포츠활동을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활동 전반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기도 한다(남동현 2004). 환언하면 스포츠 참여 역시 즐거움과 기분전환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 레저스포츠 진흥협회는 레포츠에 대해 『스포츠에는 골프를 비롯해 오토바이 대륙횡단, 스쿠버 다이빙과 같이 레저성이 강한 스포츠가 포함되는 반면, 레저스포츠는 특정 스포츠종목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스포츠를 즐거움이나 기분전환 등의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을 레포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정의한다.³⁾ 이를 종합하면 레포츠는 『즐거움과 기분전환, 흥미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피싱(Fishing)은 일반적으로 『어류(Finfish)를 어획하는 활동』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어획활동은 그 자체가 어류뿐만 아니라 패류, 해조류 등 다양한 해수와 민물에 서식하는 동식물로 이루어진 수중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본다면, 피싱의 대상을 어류뿐만 아니라 각종 패류 및 수중식물까지로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싱의 목적도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해 취하는 개념을 넘어서 관찰을 위해 일정 시간 채취하거나 혹은 어획하였다가 다시 놓아주는 것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피싱을 수중동식물을 어획하거나 수중생태계를 관찰하는 일체의 행위로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포츠피싱을 『레저(혹은 레크리에이션)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중동식물을 채포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특징을 갖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비상업적 어업행위: 레포츠피싱은 상업적 어업과 마찬가지로 수산생물을 채포하기는 하나 채포한 수산물을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적 어업행위
- 대상의 광역성: 레포츠피싱의 대상은 수산동물만이 아니라 수중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포함한 광역성을 가지고 있음
- 행위의 다양성: 레포츠피싱의 협의개념은 레포츠 행위과정에서 수산생물을 채포하는 것이

3) 김학신·이덕성·민창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레포츠시장의 개발 방향, 제38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 스포츠이벤트와 지역사회 발전, 2000, p 888-889

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수산생물 채포행위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수산생물이나 수산생태계를 직접 수중에서 관찰하는 행위까지를 포함

미국에서는 레포츠피싱과 유사한 개념으로 레크리에이셔널피싱(Recreational Fishing)과 스포츠피싱(Sports Fish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레포츠피싱과 다른 개념이다. 먼저 레크리에이셔널피싱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활동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스포츠피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스포츠피싱은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i) 낚시를 통해 어획물 획득하거나 금전적 가치를 얻기보다는 바다에서 어류를 찾아내고 잡기 위해 도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ii) 목표어종을 두고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경쟁적인 어획을 행하고, (iii) 공간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싱을 위한 이동범위가 광역적이며, (iv) 경우에 따라 고가장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레크리에이셔널피싱과 스포츠피싱은 모두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낚시활동을 그 영역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관찰행위를 포함하는 레포츠피싱의 개념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요컨대 레포츠피싱은 스포츠피싱과 레크리에이셔널피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레포츠피싱은 해양을 기반으로 여가를 활용하고 레저를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해양레포츠, 해양관광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수중동식물을 채포, 관찰하는 체험적 행위에 보다 역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해양관광이나 어촌체험마을과는 프로그램이나 대상영역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해양관광이나 어촌체험마을은 어촌생활 체험이나 문화체험과 같이 해양이나 어촌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활동을 대상 자원으로 하지만, 레포츠피싱은 이러한 인문, 사회, 문화적 자원보다는 해양 생물자원을 활동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수욕,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피싱활동과 관련이 없는 해양레포츠 활동과는 달리, 레포츠피싱은 주로 바다낚시,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과 같이 해양생물을 채취하거나 관찰하는 행위만을 포함한다. 예컨대 해양관광의 영역에는 갯벌맛사지, 갯벌씨름, 갯벌축구 등과 같이 갯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지만 레포츠피싱에는 실제로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만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레포츠피싱은 해양관광이나 어촌체험마을의 일부를 구성하긴 하지만 그것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표 1> 해양관광과 레포츠피싱간 프로그램 비교

| 해양관광(어촌체험관광) | 레포츠피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생활 체험: 어촌경관, 어촌의 분위기, 어항, 전통행사, 새벽 어시장, 향토요리, 기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체험: 지인망, 정치망, 오징어낚시, 야간조업체험 등 생태체험: 갯벌관광(갯벌맞사지, 갯벌체험), 철새관찰, 경관감상, 잠수정, 산책, 에코트래킹, 산책 등 양식장체험: 양식사료주기, 김 말리기, 양식물 가공체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체험: 좌동 생태체험: 갯벌체험, 잠수정 양식장체험: 양식물 어획과 관련된 활동 위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스포츠: 해수욕, 스쿠버다이빙, 낚시, 수상스키, 비치발리, 윈드서핑, 씨워킹, 스노클링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스포츠: 스쿠버다이빙, 낚시, 씨워킹, 스노클링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험: 문화유적, 풍어제, 영등제, 민속전시관 등 | |

2. 유형

레포츠피싱을 전술한 바와 같이 레크레이션과 스포츠가 혼합된 비상업적 수산물 채취 및 어획활동과 수중생태계를 관찰하는 여가활동으로 규정할 때,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레포츠피싱 활동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i) 해양동물 포획에 중점을 둔 유어낚시형, (ii) 종전의 갯벌 맞사지나 단순한 갯벌행사가 아닌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 체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갯벌체험, (iii) 그물어업이나 전통적인 어법을 경험해보는 체험어업형, (iv) 수중생태계 동식물을 관찰하는 행위에 역점을 두는 수중 관찰형이다.

과거 유어낚시가 주류를 이루던 패턴에서 벗어나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의 영향으로 갯벌체험형과 체험어업형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각각 유형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패턴에서 최근에는 이들 각각의 유형을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어낚시형과 수중관광형은 주로 동호회 및 소규모 친목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갯벌체험형과 체험어업형은 중대규모 단체/기관이나 가족, 연인 등 소규모 인원이 모두 즐기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유형의 레포츠피싱 활동은 후기 산업사회와 여가사회에서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소득기반으로서 직간접으로 어가소득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어업 외의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국내 레포츠피싱 유형

| 유형 | 세부유형 | 내용 |
|---------------------|-------------|---|
| 유어낚시형 ⁴⁾ | 바다낚시 | 선상낚시, 갯바위 낚시 유어장(유료낚시터) 낚시 등 |
| | 민물낚시 | 하천낚시, 호소낚시, 인공낚시터 낚시 등 |
| 갯벌체험형 | 체험어장 (체험형) | 갯벌맨손체험 |
| | 생태학습장 (교육형) | 갯벌생태체험 |
| 체험어업형 | 양식장체험 | 사료주기, 양식과정 참여, 양식물 수확 등 |
| | 조업체험 | 문어통발어업, 야간햇불조업, 그물어업, 머구리어업, 해녀조업 등 |
| | 전통어업체험 | 손퐁치잡이, 지인망어업, 도수낚시, 창경바리어업 등 |
| | 기타 | 해조류건조 등 |
| 수중관찰형 | 직접 관찰형 |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씨워킹, 비치다이빙 등 ** 국내에서 활성화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국민의 해외관광 증가로 이러한 형태의 레포츠피싱을 즐기는 인구가 많음 |
| | 간접 관찰형 | 잠수정 등 |

III. 레포츠피싱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설계 및 방법

설문조사는 레포츠피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 서울 등 7개 시도에 걸쳐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회사인 (주) 이티카운슬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3명의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에 의해 1대 1 면접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조사시기, 조사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조사시기 - 2005년 10월, (ii) 조사장소(직접 면접조사)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전북, (iii) 표본추출방법 - 편의추출법, (iv) 조사방법 - 3명의 사전 교육된 조사원의 1대1 면접법, (v) 유효표본 수집 - 설문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미가입된 경우 표본에서 제외(유효표본 총 270개).

수집된 설문지는 편집과 코딩과정을 거쳐 자료처리를 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는 코딩 이전의 기록상 오류를 식별하여 유효표본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였고, 또한 코딩과정에서는 설문내용을 기호화하여 엑셀(Excel)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코딩과정 이후 입력 자료의 오류를 최종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한글 SPSS 12.0을 이용하였고, 모든 문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항목별 응답 빈도와 점유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 유어낚시를 레저낚시(일반적인 대부분의 낚시)와 스포츠낚시(지칭, 플라이)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레포츠피싱을 레저와 스포츠가 모두 포함되는 보다 포괄적 개념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어낚시를 대상지역별(민물낚시와 바다낚시)로만 구분한다.

2. 표본특성

이러한 자료처리 과정을 통해 확보되어 분석에 활용된 유효표본은 총 270개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7.8%, 여성이 22.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은 30대, 40대가 가장 높은 61.9%로 나타났고, 이어 20대는 22.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40, 30, 20대의 연령분포를 나타냈다. 소득분포는 2천~3천만 원 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천만 원 미만(28.1%) 순이었다. 참가자의 지역분포는 서울(45.2%), 경기(31.9%) 등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이 전체 응답수의 77% 이상을 점했다.

<표 3>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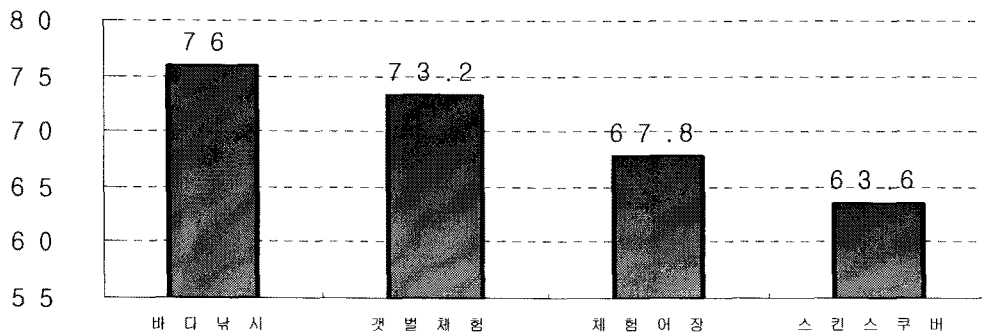
| 구분 | | 빈도(명) | 비율(%) | 구분 |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남 | 210 | 77.8 | 거주지 | 서울 | 122 | 45.2 |
| | 여 | 60 | 22.2 | | 부산 | 1 | 0.4 |
| | 계 | 270 | 100.0 | | 대구 | 5 | 1.9 |
| 연령 | 10대 | 1 | 0.4 | | 인천 | 13 | 4.8 |
| | 20대 | 61 | 22.6 | | 대전 | 4 | 1.5 |
| | 30대 | 75 | 27.8 | | 울산 | 1 | 0.4 |
| | 40대 | 92 | 34.1 | | 경기 | 86 | 31.9 |
| | 50대 | 40 | 14.8 | | 강원 | 11 | 4.1 |
| | 60대 이상 | 1 | 0.4 | | 충북 | 12 | 4.5 |
| | 계 | 270 | 100.0 | | 충남 | 6 | 2.2 |
| 소득 | 2천만원미만 | 76 | 28.1 | | 전북 | 5 | 1.9 |
| | 2천~3천만원 | 99 | 36.7 | | 전남 | 2 | 0.7 |
| | 3천~4천만원 | 74 | 27.4 | | 경북 | 1 | 0.4 |
| | 4천~5천만원 | 15 | 5.6 | | 경남 | 1 | 0.4 |
| | 5천만원이상 | 6 | 2.2 | | 계 | 270 | 100.0 |
| | 계 | 270 | 100.0 | | | | |

3. 조사자료 분석 결과

가. 레포츠피싱 활동 행태: 선호도/동기/참여횟수/목적지 선호도/비율

레포츠피싱에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바다축제, 바다낚시, 갯벌체험, 체험어장, 스낀스쿠버 순으로 조사되었고 레포츠피싱을 하는 동기는 재미와 즐거움(38.9%) 때문에 한다가 가장 높고, 이어 취미생활(28.1%), 체험하고 싶어서(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레포츠피싱 선호순위



주 : 바다축제는 레포츠피싱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외함

<표 4> 레포츠피싱 동기(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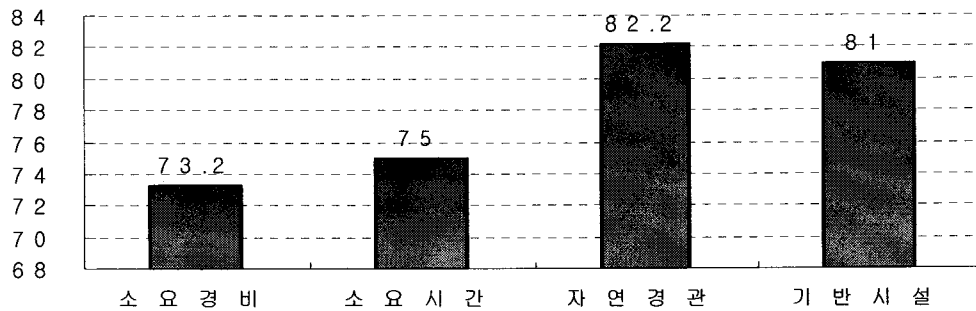
| 응답내용 | 빈도(응답수) | 비율(%) |
|---------------|---------|-------|
| 재미와 즐거움 | 105 | 38.9 |
| 바다가 좋아서 | 45 | 16.7 |
|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 43 | 15.9 |
| 취미생활 | 76 | 28.1 |
| 스트레스 해소 | 43 | 15.9 |
| 체험하고 싶어서 | 49 | 18.1 |
| 기타 | 7 | 2.6 |
| 계 | 263 | 100 |

레포츠피싱에 연간 참여하는 횟수에 대한 응답은 1회가 42.2%, 2회가 26.8%, 3회가 12.2% 순으로 3회 이하가 81.2%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레포츠피싱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레포츠피싱 장소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자연경관(82.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반시설(81점), 시간(75점) 순으로 나타났다(총 점수는 100으로 계산).

<표 5> 레포츠피싱 연간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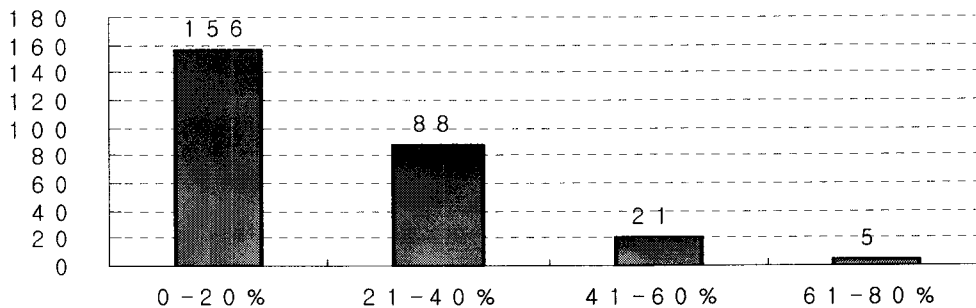
| 응답내용 | 빈도(명) (n=265) | 비율(%) |
|--------|---------------|-------|
| 1회 | 114 | 42.2 |
| 2회 | 71 | 26.8 |
| 3회 | 33 | 12.2 |
| 4회 | 9 | 9 |
| 5회 | 13 | 13 |
| 6-9회 | 4 | 1.4 |
| 10-19회 | 17 | 6.3 |
| 20회이상 | 4 | 1.2 |
| 계 | 270 | 100 |
| 평균 | 5.1회 | |

<그림 3> 레포츠피싱 목적지 선택의 중요도



자신이 여가생활에 투자하는 총 시간과 금액 중 레포츠피싱에 투자하는 시간과 금액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시간과 금액 모두 20%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가 각각 56.3%, 5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1-40%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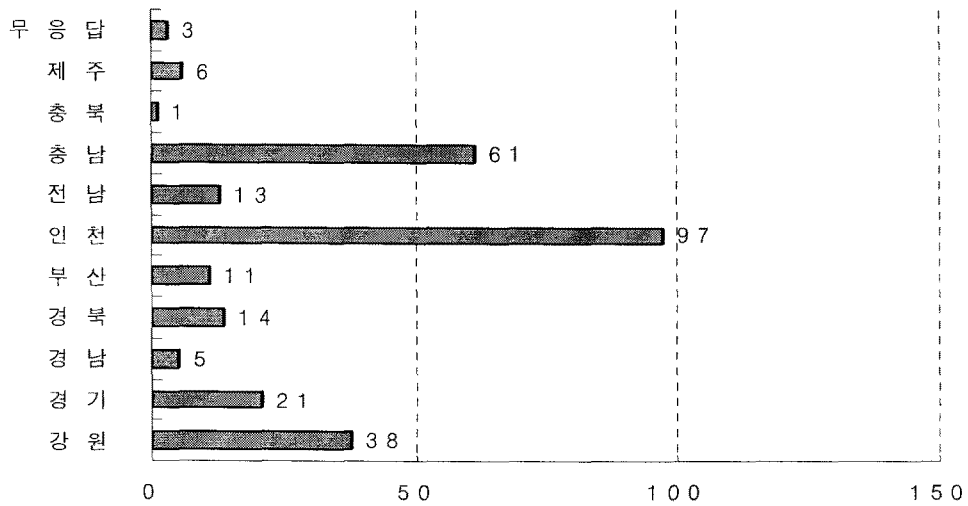
<그림 4> 레포츠피싱 투자금액



나. 레포츠피싱 방문형태: 방문지역/연간 참여횟수

레포츠피싱 방문지역으로는 인천지역이 35.9%로 가장 높고, 충남(22.6%), 강원(14.1%)의 순으로 방문지역 선정시 지역적 접근성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지역에서 연간 레포츠피싱에 참여하는 횟수에 대한 질문에서 3회라고 답한 경우가 총 응답자 270명의 24.1%인 6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회가 21.1%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5회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를 합하면 총 84명인 31.1%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레포츠피싱 방문지역



<표 6> 방문지역 레포츠피싱 연간 참여횟수

| 응답내용 | 빈도(명) (n=270) | 비율(%) |
|--------|------------------|-------|
| 1회 | 33 | 12.2 |
| 2회 | 57 | 21.1 |
| 3회 | 65 | 24.1 |
| 4회 | 26 | 9.6 |
| 5회 | 39 | 14.4 |
| 6-9회 | 15 | 5.5 |
| 10-19회 | 16 | 5.9 |
| 20회 이상 | 14 | 5.3 |
| 무응답 | 5 | 1.9 |
| 계 | 270 | 100 |
| 평균 | 2.99회 | |

다. 교통수단/소요시간/방문유형/숙박시설

레포츠피싱 여행 시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가 89.3%, 고속/시외/시내 버스 이용이 6.3%로 조사되었다. 집에서 방문 장소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2-3시간 미만이 31.5%, 5시간 이상이 1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7> 소요시간

| 응답내용 | 빈도(명) | 비율(%) |
|------------|--------|-------|
| 1시간 미만 | 0 | 0 |
| 1시간~2시간 미만 | 47 | 17.4 |
| 2시간~3시간 미만 | 85 | 31.5 |
| 3시간~4시간 미만 | 78 | 28.9 |
| 4시간~5시간 미만 | 30 | 11.1 |
| 5시간 이상 | 30 | 11.1 |
| 계 | 257 | 100 |
| 평균 | 3.67시간 | |

레포츠피싱 관광객들은 당일로 방문한 비율이 23%이며, 숙박을 한 경우가 77%로 조사되었다. 숙박을 한 경우에도 1박2일의 일정이 58.1%로 나타나 숙박기간이 길지 않았다. 레포츠피싱 관광객들이 이용한 숙박시설을 조사한 결과, 민박/펜션이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여관/모텔이 20.5%, 콘도미니엄이 13.8%로 나타났다.

<표 8> 방문유형

| 응답내용 | 빈도(명) | 비율(%) |
|----------|-------|-------|
| 당일관광 | 62 | 23 |
| 숙박관광 | 208 | 77 |
| 1박 2일 | 157 | 58.1 |
| 2박 3일 | 36 | 13.3 |
| 3박 4일 이상 | 15 | 5.6 |
| 계 | 270 | 100 |

라. 레포츠피싱 여행경비/소요시간/재방문 의사

레포츠피싱 관광을 하면서 1인당 소비한 여행경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125,149원으로 나타났고, 분포별로는 5만원 미만이 9.6%, 5~10만 원 미만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15만원 미만이 27.8%, 20만원 이상은 17.4%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표 9> 1인당 여행경비

| 응답내용 | 빈도(명) (n=270) | 비율(%) |
|------------|------------------|-------|
| 5만원 미만 | 26 | 9.6 |
| 5~10만원 미만 | 77 | 28.5 |
| 10~15만원 미만 | 75 | 27.8 |
| 15~20만원 미만 | 45 | 16.7 |
| 20만원 이상 | 47 | 17.4 |
| 계 | 270 | 100 |
| 1인당 평균여행비용 | 125,149 | |

레포츠피싱 관광을 하면서 1인당 소비한 1일 여행경비는 평균 63,268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5만원 미만이 전체의 35.2%를 차지했고, 5~10만원 미만 49.6%, 10만원~15만원 미만 13% 등으로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레포츠피싱 관광을 하면서 사용한 금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용품비가 44,8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박임차비와 숙박비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방문객이 방문지역에서 레포츠피싱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5시간 미만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9시간이 30.7%, 2시간 미만이 21.5%로 다소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레포츠피싱을 한 지역에 대한 재방문 의사에 대해서는 97%의 응답자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여 레포츠피싱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다는 것을 반영했다.

<표 10> 레포츠피싱 소요시간

| 응답내용 | 빈도(명) | 비율(%) |
|--------|-------|-------|
| 2시간미만 | 58 | 21.5 |
| 2-5시간 | 114 | 42.2 |
| 5-9시간 | 83 | 30.7 |
| 9-12시간 | 10 | 3.7 |
| 12시간이상 | 5 | 1.9 |
| 계 | 270 | 100 |

<표 11> 해당 지역 재방문 의사

| 응답내용 | 빈도(명) (n=270) | 비율(%) |
|------|------------------|-------|
| 예 | 262 | 97 |
| 아니오 | 8 | 3 |
| 계 | 270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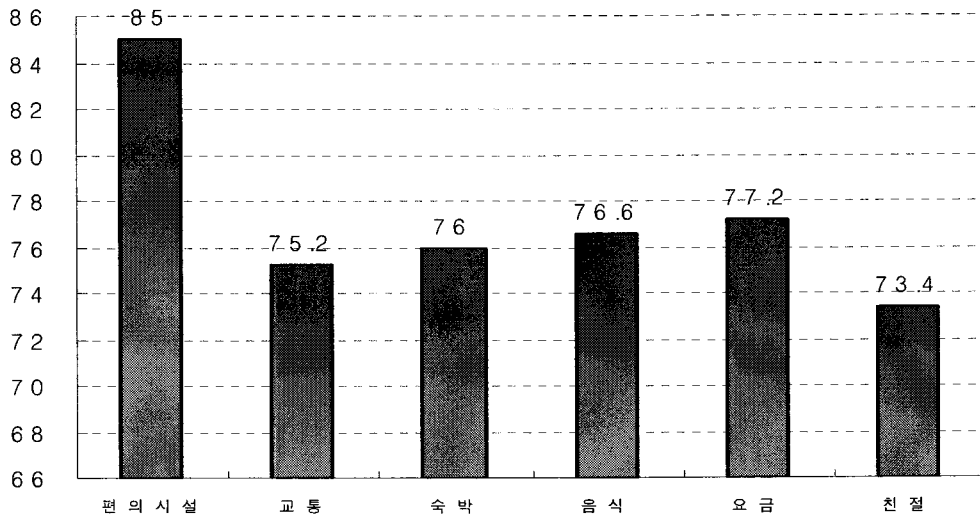
(마) 어민과의 마찰 및 보완점

레포츠피싱을 한 지역에서 90.4%의 응답자가 어민과의 마찰이 없었다고 답함으로써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마찰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레포츠피싱 참여자들의 쓰레기 및 낮은 질서의식 문제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만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상반된 현상을 보였다. 레포츠피싱 지역에서 보완할 점으로는 편의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금, 음식, 숙박, 교통시설에 대한 보완과 지역민의 친절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총 점수 100으로 계산).

<표 12> 어민마찰

| 응답내용 | 빈도(응답수) (n=270) | 비율(%) |
|------|--------------------|-------|
| 예 | 26 | 9.6 |
| 아니오 | 244 | 90.4 |
| 계 | 270 | 100 |

<그림 6> 레포츠피싱 지역 보완점



IV. 레포츠피싱 수요 분석 및 예측

1. 지출함수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레포츠피싱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이 콥-더글라스 함수형태의 지출함수를 설정하고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선형모형으로 변형

하였다. 종속변수를 연간 레포츠피싱참여회수(LYH), 독립변수를 단위교통비(LTE), 단위 음식비(LFE), 단위 숙박비(LSE), 단위 레포츠피싱 비용(LLP), 1인 연간소득(LY)으로 사용하였다. 단, $i =$ 횡단면 표본 $i (i = 1, 2, 3, \dots, 263)$, LYH=레포츠피싱 참여회수(연간 1인, 회), LFE=음식비(원/일/인), LSE=숙박비(1원/일/인), LLP=레포츠비용(원/일/인), LY=소득(원/연/인), $\hat{\beta}_k = k$ 번째 독립변수의 파라메타 ($k = 0, 1, 2, \dots, k$), $e_i =$ 오차항이다.

$$LYH_i = \hat{\beta}_0 + \hat{\beta}_1 LTE_{1i} + \hat{\beta}_2 LFE_{2i} + \hat{\beta}_3 LSE_{3i} + \hat{\beta}_4 LLP_{4i} + \hat{\beta}_5 LY_{5i} + e_i \quad (1)$$

위 추정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연간 레포츠피싱 비용을 이용하지 않고, 연간 1인 레포츠피싱 참여회수를 사용한 이유는 비용을 종속변수로 이용할 경우, 조사된 독립변수들은 사실상 총비용과 정(正)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출(수요)함수로서 의미를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사변수로서 참여회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모형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실증 회귀분석 모형은 단순한 선형모형이고 추정에 설문조사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보통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해서 모형의 파라메타를 추정하더라도 그 추정치는 편이(bias)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파라메타 추정치의 공분산이 편이(bias)되기 때문에 통계적 가설검정 시 검정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hite(1980)의 이형분산 하에서의 일관성 있는 분산-공분산 매트릭스(varance-covariance matrix: V)를 추정하여 이형분산 문제를 교정하였다. 단, $X = (k \times N)$ 독립변수 매트릭스, $\hat{\beta} =$ 점근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파라메타 추정치 벡터이다.

$$V(\hat{\beta}) = (X'X)^{-1} \left[\sum_{i=1}^N e_i^2 X_i X_i' \right] (X'X)^{-1}$$

추정결과 결정계수(R^2)는 0.427로 나타났고, 식대변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 파라메타(parameters) 추정치의 부호는 경제이론과 부합하였으며, 최소한 10%의 전통적 임계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특히 소득탄성치가 1.266으로 추정되어,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레포츠피싱에 대한 수요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레포츠피싱 지출(수요)함수 추정결과

| 독립변수 | 파라메타 추정치 | 표준오차 | t - 값 |
|-----------------------|----------|-------|-----------|
| <i>LTE</i> (1인연간교통비) | - 0.507 | 0.189 | -2.683*** |
| <i>LFE</i> (식대) | - 0.319 | 0.259 | -1.232 |
| <i>LSE</i> (숙박비) | - 0.124 | 0.055 | -2.255*** |
| <i>LLP</i> (레포츠피싱 지출) | - 0.410 | 0.224 | -1.830** |
| <i>LY</i> (1인연간소득) | 1.266 | 0.413 | 3.065*** |
| <i>INTERCEPT</i> (절편) | - 6.359 | 2.147 | -2.962 |
| R^2 (결정계수) | 0.427 | | |

주 : *, **, ***는 각각 1%, 5%, 10% 임계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짐.

3. 레포츠피싱 수요 예측

레포츠피싱 수요를 예측하는 데는 몇 가지의 중요한 파라메타가 필요하다. 예컨대 레포츠피싱 참여자수, 소득탄성치, 인구증가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소득탄성치는 가용하지만, 레포츠피싱 참여자수는 사실상 그 추계가 극히 어렵고, 인구증가율 또한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레포츠피싱 수요예측에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레포츠피싱 참여자수의 증가는 인구증가율에 비례한다기 보다는 주5일근무제 도입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레포츠피싱에 대한 잠재수요의 실현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포츠피싱 참여자수에 대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위한 초기 레포츠피싱 인구는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중 어촌체험마을 관광객수와 일반어촌관광객수를 합한 2005년 총 어촌관광객 수의 추정치를 초기 레포츠피싱 인구로 사용하였고, 레포츠피싱 인구증가율의 경우 우리나라 출국 관광객수와 입국 관광객수의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였다⁵⁾.

예측에 이용된 모형은 아래 식과 같고, $LFP_t = t$ 연도의 레포츠피싱 인구, $TPR_t = t$ 연도의 평균 내국인출국 및 외국인입국 관광객 증가율, $\hat{\eta} =$ 소득탄성치, $GNP =$ 경제성장률, $t = 2006 \sim 2015$ 이고, 이 정보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레포츠피싱 인구는 아래 (표 18)과 같이 예측되었다.

$$LFP_t = LFP_{t-1}(1 + TPR)(1 + \hat{\eta} \times GNP)$$

5) 본 연구의 레포츠피싱 인구는 해수면을 기반으로 한 레포츠피싱 활동인구를 추산한 것이며, 이는 가용자료의 한계에 따라 해양관광 및 어촌관광인구를 활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표 14> 국내 해수욕장 및 어촌관광객 수(2004/2005)

단위 : 만명

| 구분 | 2004년 | 2005년 |
|---------|-------|-------|
| 해수욕장 | 317.4 | 463.6 |
| 어촌체험마을 | 52.8 | 62.3 |
| 일반 어촌관광 | 160.0 | 186.0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표 15> 예측에 이용된 파라메타 추정치

| 구분 | 국내외 관광객 증가율(%) | GNP성장률(%) <i>GNP</i> | 레포츠피싱 소득탄성치 $\hat{\eta}$ |
|--------|----------------|-------------------------|-----------------------------|
| 추정치(%) | 10.334 | 4~5 | 1.266 |
|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 KDI | 설문조사 |

<표 16> 레포츠피싱 인구 예측(2006~2015년)

| 연도 | 2006 (만명) | 2007 (만명) | 2008 (만명) | 2009 (만명) | 2010 (만명) |
|---------------|--------------|--------------|--------------|--------------|--------------|
| 경제성장률 4(%) | 260.9 | 274.1 | 288.0 | 302.5 | 317.9 |
| 5(%) | 264.0 | 280.7 | 298.5 | 317.4 | 337.5 |
| 연도 | 2011 (만명) | 2012 (만명) | 2013 (만명) | 2014 (만명) | 2015 (만명) |
| 경제성장률 4(%) | 330.0 | 350.9 | 368.6 | 387.3 | 406.9 |
| 5(%) | 358.8 | 381.6 | 405.7 | 431.4 | 458.7 |

요컨대 2015년 해양레포츠 인구는 406.9만명~458.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고, 2005년 설문조사 대상자 1인 연간 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을 이용하여 추산한 시장규모는 1조4천억원(349,240원/명×4,069,000명)~1조6천억원(349,240원/명×4,58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V. 어촌의 역할과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촌 소득원개발 가능성

1. 어촌의 역할

가. 레포츠피싱 이용객을 위한 기본 인프라 제공

레포츠피싱 활동은 바다나 하천, 호수 등 내수면과 일부 유어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관찰하는 형태의 레포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어선이나 기타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본 장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비나 시설을 보관하거나, 레포츠피싱을 통해 얻은 어획물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때로는 어획물을 바로 소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레포츠피싱 활동은 1~2시간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루나 이틀에 걸쳐 행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나 보관, 저장시설, 기타 기반시설은 레포츠피싱 이용객의 행동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어촌이며 어항이다. 즉, 어촌이나 어항은 이처럼 레포츠피싱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포함하고 이를 관리하며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어촌은 기본적으로 바다, 하천, 호수와 같은 수면을 이용한 어획 및 양식활동 등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각종 어구나 양식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생산된 수산물을 이용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가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나. 자연·역사·문화와 접촉하는 생활공간으로서 기능

어촌은 자연을 간직한 곳으로 천연의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다른 형태의 생활양식, 가치관, 문화 등이 살아있는 곳이다. 또한 해양관련 축제, 지역고유의 바다음식, 어구어법, 해양관련 사적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자원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해양관련 축제의 경우, 현재 전국에 약 70여개 가량이 연중 계절에 상관없이 열리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대하나 꾸꾸미 등 바다음식 등과 관련된 문화축제가 가장 많고, 이 외에 연평도 풍어제나 위도 띠벳놀이 등과 같은 어업행위와 관련된 축제도 1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 또한 각 어촌지역의 바다 향토요리도 매우 다양하다. 이 외에 보령이나 서천 일대의 대하삼중망어업, 군산의 조망을 이용한 꽃새우잡이, 거제시의 육수장망, 제주도의 멸치분기초망 등과 같이 각 지역의 특수한 어구·어법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역시 레포츠피싱 이용객에게는 매우 흥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촌의 중요한 역할은 도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휴양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특히 도심의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벗어나 '정'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6) 신동주·신혜숙, 해양관광개발론, p 63, 2005.

<표 17> 지역별 바다향토요리

| 구 분 | 주 요 향 토 요 리 |
|-------|---|
| 경기·인천 | 뽕대이회(강화), 꽃게탕(인천 송도), 조기젓, 오징어순대 |
| 충남 | 어리굴젓(서산), 뽕어회(당진), 갯개미회(만리포), 새조개 데침회(천수만) |
| 전북 | 옹어회(금강), 문어회 |
| 전남 | 갈낙탕(영암), 바지락회(득량만), 홍어찜(목포), 바다참장어회(고흥군), 꼬막(별교), 굴비(영광), 산낙지(신안, 무안), 노래미탕, 가자미회 |
| 경남·부산 | 재첩국(하동), 멸치회(기장), 아구찜 |
| 경북 | 과매기(포항), 영덕(대게), 물회 |
| 강원 | 황태구이, 오뉴월 송어회, 연어구이(양양) |
| 제주 | 옥돔물회, 성어국, 갈치회, 고등어회, 전복소라회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 2000.4. p35.

2. 어촌소득원의 개발가능성 및 파급효과

레포츠피싱은 단순히 활동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이나 만족감 이외에, 레포츠피싱이 이루어지는 어촌이나 어항 등 주변 환경에서 사회적, 인문학적, 문화적 활동들과 연계될 때 그 이용자들의 만족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이용객들의 재방문률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레포츠피싱의 경제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촌 자체와 부존자원은 레포츠피싱 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촌이 레포츠피싱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산물 생산이라는 단순한 소득구조를 탈피해 소득다각화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촌은 수산물 및 기타 가공품의 생산주체이자 최초의 판매주체이기도 하다. 이들 대부분의 수산물이나 가공품은 중간상에게 넘겨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레포츠피싱이 활성화되면서 어촌이 레포츠피싱 이용객이라고 하는 최종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생산물들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간이 직판장 시설 등을 확충해 이러한 어촌의 직판기능을 강화하고 생산물 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산된 어획물을 그물이나 기타 장비에서 떼어내 내장이나 기타 분비물을 제거한 후 말리는 등의 단순 가공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도시민의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레포츠피싱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이러한 부대활동과 특히 어가에서의 숙박 등을 함께 연계시켜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소규모 레포츠 이용객 그룹 하나가 하나의 어가를 기반으로 수산물 어획, 단순가공과정, 기타 어촌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레포츠피싱의 흥미를 배가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가들이 기르는 어업에 치중하기 시작하면서 해상가두리 양식이 많아졌는데, 늘어나는 해상가두리 시설을 낚시터로 전환해 레포츠피싱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레포츠피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상가두리 낚시터에 착안해 수심이 낮은 지역에 이러한 해상가두리 시설과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 이를 가족형 이용객들을 위해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가두리 내에 있는 양식물을 대상으로 유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어장의 경우 전술한 대로 체장제한을 어기거나 제한어획량 이상을 어획하는 등의 이용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관리체제가 완비된다고 하더라도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차라리 일정한 관리와 함께 이를 판매 등으로 연결시켜 유어장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어장 관리 및 운영비용으로 채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체장제한을 어길 시에는 명확한 기준 하에 관리를 하되, 제한어획량 이상을 잡은 이용객에 대해서는 그 초과어획량을 일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는 유어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어업이나 수중체험 등의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즉 체험어선의 경우, 적정 수준의 어획가능량을 정해서 승선료로 받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체험어업을 운영하는 어가들에게 별도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과물량을 신선냉장 또는 일차 가공한 후 택배를 해주는 등의 서비스와 연결시켜 이용객들이 방문 어촌계의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의 충성도(Royalty)를 높일 수 있다.

레포츠피싱 유형별로 어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그러나 예측된 잠재수요가 모두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레포츠피싱 지출항목 중에서도 어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은 음식물비, 숙박비, 렌트, 낚시, 스쿠버 다이빙비, 기타 잡비 등으로 압축된다.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인 연간 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은 604,990원이며, 교통비, 음식물비, 숙박비에 대한 지출이 62.3%~74.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8> 유형별 레포츠피싱 활동에 따른 어촌소득 증대 가능분야

| 구분 | | 소득분야 | |
|----------------|-------------------|--------------------|---|
| 유어낚시형 | 직접소득 | ● 낚시터 운영수입 | 유료낚시터 입장료, 유어장 입어료 |
| | | ● 유어선 운영수입 | 유어선 대여료 |
| | | ● 기타 관련용품 판매·대여수입 | 낚시도구 대여, 미끼판매 |
| | ● 활어 판매수입 | 낚시객을 상대로 한 활어 판매수입 | |
| | 간접소득 | ● 서비스비용 | 낚시객이 어획한 수산물을 회로 떠주는 비용 |
| ● 숙박 및 음식판매 수입 | 숙박료, 음식료, 기타 식음료비 | | |
| 갯벌체험형 | 직접소득 | ● 갯벌체험장 운영수입 | 체험장 입장료 |
| | | ● 체험도구 대여수입 | 장화, 갈고리, 뽕배, 소금(패류), 기타 대여료 |
| | | ● 각종 수산물 판매수입 | 체험어장 주변에서 어획된 수산물 판매 체험어장에서 어획된 수산물 판매수입 |

| | | | |
|-------|----------|---|---|
| | | | (제한한 마리수 이상을 어획한 경우) |
| | 간접소득 | ● 숙박 및 음식판매 수입 | 숙박료, 음식료, 기타 식음료비 |
| 체험어업형 | 직접소득 | ● 어선승선료 | 야간횃불조업, 그물어업 체험 시 필요한 어선승선료 |
| | | ● 양식장 체험료 | 양식장 체험에 앞서 입장료 대신 지급하는 체험료 |
| | | ● 어구대여료 | 정치망, 독살, 전통어업 시 필요한 어구대여료 |
| | ● 활어판매수입 | 체험활동을 통해 어획한 수산물이 어획제한량을 초과했을 때, 이를 체험자에게 재판매 | |
| | 간접소득 | ● 서비스비용 | 체험활동을 통해 수확한 수산물을 어촌에서 건조, 가공 과정 등을 통해 체험자에게 제공해주는 데에 따른 비용 |
| | | ● 숙박 및 음식판매 수입 | 숙박료, 음식료, 기타 식음료비 |
| 수중관찰형 | 직접소득 | ● 유어장 입장료 | 수중관찰이 가능한 어장내 입어료 혹은 입장료 (잠수정의 경우는 잠수정 승선료) |
| | | ● 관련장비 및 먹이 대여료 | 스킨스쿠버, 씨워킹이나 스노클링 등을 위한 간단한 장비대여 |
| | | ● 수산물 판매수입 | 주변에서 생산된 수산물 판매수입 단, 입어와 제한된 양의 어획을 허가할 경우에는 제한량 이상으로 어획한 어획물 판매수입이 가능 |
| | 간접소득 | ● 숙박 및 음식판매 수입 | 숙박료, 음식료, 기타 식음료비 |

앞서 수요분석에서 보았듯이, 2015년 해양레포츠 인구는 406.9만 명~458.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2005년 설문조사 대상자 1인 연간 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을 이용하여 추산한 시장규모는 1조4천억원(349,240원/명×4,069,000명)~1조6천억원(349,240원/명×4,58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레포츠피싱에 대한 커다란 잠재수요는 어촌관광과 레포츠피싱 개발의 높은 가능성과 성공확률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19> 레포츠피싱 항목별 평균지출액

| 지출항목(1인 연간)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 | 최대 |
|---------------|-----|----------------|---------|--------|-----------|
| 레포츠피싱총지출(원) | 265 | 604,990 | 795,350 | 27,000 | 6,000,000 |
| 어가소득기여율(1)(%) | | 0.623 | 0.168 | 0.000 | 0.930 |
| 어가소득기여율(2)(%) | | 0.742 | 0.126 | 0.085 | 1.000 |
| 교통비(원) | 265 | 161,390(0.254) | 293,480 | 6,000 | 3,000,000 |
| 음식물비(원) | 265 | 161,390(0.276) | 293,480 | 0.000 | 3,000,000 |
| 숙박비(원) | 265 | 127,140(0.112) | 196,780 | 0.0000 | 1,250,000 |
| 렌트비(원) | 265 | 47,863(0.007) | 106,940 | 0.0000 | 750,000 |
| 스쿠버다이빙(원) | 265 | 8,865(0.036) | 74,378 | 0.0000 | 1,050,000 |
| 낚시(원) | 265 | 40,975(0.036) | 149,700 | 0.0000 | 1,250,000 |
| 기타잡비(원) | 265 | 62,780(0.111) | 149,590 | 0.0000 | 1,800,000 |

주: 어가소득기여율(1): (음식물비+숙박비+낚시+기타잡비)/레포츠피싱총지출. 어가소득기여율(2): (음식물비+숙박비+렌트비+스쿠버다이빙+낚시+기타잡비)/레포츠피싱총지출

따라서 앞서 예측한 잠재수요와 항목별 지출비율을 감안할 때, 레포츠피싱에 대한 잠재수요 중 어가수입 또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비율은 62.3%~74.2%로, 9.345천억원~11.13천억원의 어가소득 증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전망치는 어가소득 실현 가능치이며, 어촌관광 및 레포츠피싱에 대한 정책의 내용과 투자규모 그리고 정책의지에 따라 그 승수효과 및 파급효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함의

레포츠피싱(Leports Fishing)은 레저(leisure)와 스포츠(sports) 그리고 피싱(fishing)의 개별 개념이 합성된 새로운 복합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연안 바다자원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개념이 의미하는 복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3면의 연안바다는 지형적, 생물학적, 생태적 특징은 매우 다르고, 연안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레포츠피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레포츠피싱에 있어서 바다낚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어촌지역 연안바다가 국민적 레포츠피싱의 장, 즉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낚시, 스쿠버 다이빙, 물고기 바비큐, 생태체험, 어업체험, 크루즈 등 안전하고, 질 높고, 다양한 서비스가 연안 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될 수 있어야 하고, 전국적 국제적 레포츠피싱 페스티벌(예: 화천의 겨울철 산천어 축제 등)의 개발이 중요한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레포츠피싱 참여자들은 레포츠피싱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하며, 1년에 2회 이상 참여자의 비율이 40%에 달한다. 또한 레포츠피싱 방문지역은 주로 중대 도시에 가까운 지역이고, 1박2일 이상의 숙박 레포츠피싱/관광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지에서의 어업인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레포츠피싱 지출(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1인당 소득에 대한 탄성치가 1.26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레포츠피싱 지출, 식대, 숙박비가 높을수록 레포츠피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2010년 우리나라 레포츠피싱 인구는 318만명, 2015년 40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레포츠피싱 참여인구 예측결과와 설문조사에서 얻은 1인당 연평균 레포츠피싱 지출액을 이용하여 추정된 2015년 우리나라 레포츠피싱 시장규모는 1조4천억원 -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이 시장규모가 어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비율은 62.3%-74.2로, 9.345천억원 - 11.13천억원의 총 어가소득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레포츠피싱이 새로운 어촌 소득원으로서 블루오션(Blue Ocean) 창출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따른 레포츠피싱 영역(domain)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단위의 레포츠피싱 개발에는 무엇보다도 고객과 어촌지역사

회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와 질서를 고려한 시설과 환경보전 그리고 서비스가 치밀하게 연계·설계되어야 하고, 설계단계에서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어촌지역사회의 자치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어촌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쉽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사영·서인원, 경북 동해안권 해양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19(2), 2004, p.140-160.
- 김성귀, 우리나라 해양관광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 17(1), 1995. p.21-39
- 김성귀, 해양관광 상품개발의 방향, 관광학연구 27, 1998. p.482-488
- 김성귀 외, 국내해양관광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 김학신·이덕성·윤창기,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레포츠시장의 개발 방향, 제38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2002.
- 김홍운·김사영, 우리나라 해양관광자원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7(1), 1992.
- 남동현, 해양스포츠 관광경영론, 대경북스, 2002.
- 도미경, 국내 해양관광개념 및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6(1), 2004. p.137-157.
- 류정곤 외, 레포츠피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부, 2005.
- 문성종, 제주지역 스포츠관광상품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8(1), 2002, p.157-176.
- 박구원·이수옥, 해안어촌관광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6(40), 2002, p.167-190.
- 박규석 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 해양수산부, 2005.
- 손대한·장희정·김민철,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광개발정책 방안: 배경경도와 사랑도의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16, 2004, p.3-34.
- 신동주,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문화관광연구 4(2), 2002, p.445-458.
- 신동주·신혜숙, 해양관광개발론, 대왕사, 2005.
- 엄서호, 레저산업론-21세기 관광산업의 새 영역, 학현사, 1998.
- 정석중, 동해안 어촌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안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연구 3, 2000, p.1-25.
- 통계청, 2004년 어가경제 조사결과, 2005.
- 해양수산부, 해양한국(Ocean Korea 2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안), 1999.

- 해양수산부, 주5일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안), 2003.
-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보고, 1991-2005.
- 해양수산부, 도시·어촌 교류를 통한 어촌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2005.
- Goeldner, Charles R. and J. R. Brentd Ritchie,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Wiley & Sons, Inc., 2006.
- White, H., *Asymptotic Theory for Econometricians*, Academic Press, 1984.